

“광주 원도심을 따라 걸으며, 역사의 숨결 마주해”

광주 동구, '국가유산 야행' 성료

25일부터 양일간 민주광장 일원 '돌의 시간' 체험형 프로그램 다채
고대서 현대까지 지역사 '한눈에'
“기억과 시간 느끼며 애향심 키워”

“광주광역시의 원도심 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역사가 숨 쉬고 있을 줄 몰랐어요. 정말 뜻깊은 축제입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광주의 시간과 기억을 따라 걷는 특별한 야간 여행이 펼쳐졌다. 시민들은 원도심 속 골목마다 깃들여 있는 이야기들을 마주하며,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인문도시의 정취를 만끽했다.

지난 25일 찾은 동구 5·18민주광장 일원에서는 '광주 국가유산 야행' 프로그램 진행이 한창이었다. 이는 동구가 9년째 주최하는 야간문화 향유 축제로, 올해는 지역 석조유산과 의료의 이야기들을 담은 '돌의(義) 시간'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33개 프로그램이 26일까지 양일간 펼쳐졌다.

개막공연과 함께 '돌의 광장'으로 변신한 민주광장에는 고대사 속 백제의 석실 고분부터 현대사의 전남도청까지, 돌을 주제로 한 전시 주제관이 마련돼 관심을 끌었다. 또 광주 5개 자치구에서는 '의병 활쏘기'와 '김덕령 장군 뱃지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형 부스를 설치했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들으며 돌탑을 쌓는 VR 체험인 '돌탑 멜로디' 역시 참여자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했다.

특히 올해 처음 운영된 '힌츠편터 기록



2025 광주국가유산야행 행사가 지난 26일 광주 동구 빛의 음성 일원에서 '돌의(義) 시간'을 주제로 열린 가운데 임택 동구청장과 꼬마의병단에 지원한 어린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학교'는 5·18민주화운동의 참상을 기록했던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편터의 시선을 바탕으로 한 간단한 기사 작성법을 교육해 호응을 받았다. 뭉뚱 바지와 모자를 쓴 어린이들은 취재수첩과 카메라를 꼭 쥐고 광장을 누비며, 시민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즉시 호의를 제작하는 등 진실을 전달하는 언론인의 역할을 몸소 체험했다.

김태일(경남 영주 풍기초교 2년)군은 “힌츠편터 기자가 기사를 작성할 때 얼마나 많은 난관을 마주하고, 고뇌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며 “5·18민주화운동의 의미와 당시 기자들의 사명에 대해 한층 더 깊이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선시대 광주읍성을 미디어아트로 재구성한 조형물인 빛의음성에서는 당시 고을의 모습을 생생히 탐색할 기회가 제공됐다. 훈장님과 함께하는 '광주읍성 유랑기'와 소리꾼들의 공연 등은 옛 광주읍성의 모습을 눈앞에 재현하고, 전통 문화체험을 제공하며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유현우·김지영(21)씨는 “전통 공연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데 뜻깊은 추억과 경험을 쌓고 간다”면서 “우리 민족의 얼을 담은 문화유산을 느낄 수 있어 큰 의미가 있었다. 조선시대 속으로 들어갔다 나온 느낌이다”며 환하게 웃었다.

민주광장 한켠에 설치된 광주역 부스에서 표를 받고 서석초교 앞의 나주역 부스

로 이동하자 일제강점기 광주의 모습이 펼쳐졌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주제로한 관객 참여형 연극 '학생 독립 기억학교'와 태극기 만들기, 장재성 선생 그리기 체험 등은 많은 학생의 발길을 이끌었다. 이들은 조국 독립을 위한 선배들의 피 끓는 희생과 헌신을 상기하며, 광주 학생으로서의 자긍심을 느꼈다고 입을 모았다.

박주은·전예랑(금당중 3년)양은 “역사적 인물들의 희생과 노력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자유롭게 공부하고 살아가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다”며 “이번 체험을 통해 학생독립운동의 가치를 깨닫고, 그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상평통보 등 '야행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광주 큰장과 작은 장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직접 만든 식음료와 잡화 등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했다. 기후활동가들은 '아나바다' 부스를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자원순환의 가치를 알렸다.

전남대 학생 서예찬(23)씨는 “환경동아리 활동의 일환으로 종이봉투 재활용하기 부스를 운영하게 됐다”며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통해 자원을 보존하고 재활용하는 움직임이 점차 확대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행사장 주변으로는 전통 의상을 맞춰 입은 '꼬마 의병단'이 순찰을 돌며 안전한 축제 분위기 조성에 나섰고, 동구 지역 초등학교로 구성된 '어린이 해설사'들이 곳곳에 배치돼 관람객들에게 문화관광자원 해설을 제공했다.

주지연(용산초교 6년)양은 “해설사 활동을 하기 위해 한동안 역사 공부에 몰두했다”며 “덕분에 국난이 닥칠 때마다 위기를 극복하려 힘을 모았던 호남인들의 의로운 역사에 대해 많이 배우게 됐다”고 귀띔했다.

관람객들은 지역 역사 문화자원을 품은 도심 야간 축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엄지를 치켜세웠다.

신선아(43)씨는 “자녀에게 체험형 역사 교육을 해주고자 광장을 찾았는데 행사 규모도 크고 볼거리도 많았다”며 “원도심을 관통하는 기억과 시간을 울곧게 바라보고, 애향심을 키울 수 있는 뜻깊은 축제”라고 강조했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광주·전남 고온건조한 날씨... “화재 주의를”

평년 대비 따뜻한 날씨 지속 전망 29일까지 초속 15m 강풍도 예보

당분간 광주·전남 지역에 고온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강한 바람도 예보되면서 화재 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27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8일 광주·전남 지역은 최저기온은 9~13도, 최고기온은 18~24도로 평년보다 1~2도가량 기온이 높은 따뜻한 날씨를 보일 것이다.

화요일인 29일도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최저기온은 4~10도, 최고기온은 18~24도로 전날과 비슷한 날씨가 지속되지만,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또한 이날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초속 10~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되면서,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에 유의해야겠다.

수요일인 30일 역시 최저기온은 6~11도, 최고기온은 19~26도로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높은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당분간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화재 예방에 대한 주의도 당부된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건조한 대기로 인해 작은 불씨도 크게 번질 수 있다”며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한 유의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은 기자

광주 학생들, 교육급여 최대 76만원 받는다

시교육청, 초·중·고 5% 인상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확대

광주지역 학생들이 올해 교육급여로 최대 76만원을 받는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7일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교육급여 금액과 학생교육비 대상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평균 5% 인상돼 운영한다. 초등학교에게는 48만7000

원, 중학생 67만9000원, 고등학생 76만8000원은 연 1회 지급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별도 통보를 받아 수급 대상자의 신용·체크카드를 통해 해당 금액을 받는다.

기존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신규대상 학생과 학부모는 내년 2월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포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교육청은 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과 교육정보화 지원비를 말하는 '학생 교육비'도 지원한다.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의 대상은 학생 교육비 심사 계호기에 따른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와 가구 중위소득 기준 80% 이하, 학교별 학교장 추천자다.

올해부터는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보도록 학교장 추천비율을 지난해 10%에서 20%로 늘렸다.

초등학생 1학년의 경우, 모든 학생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 최대 72만원을 받는다. 나머지 학년의 학생들은 조건에 충족한 경우 받게 된다. PC와 인터넷 통신비 지원인 교육정보화 지원비는 월 1만9250원 이내의 금액일 지원받을 수 있다.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오는 5월 7일 발표된다. 앞서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4일 광주시교육청시민협치진흥원에서 교육 지원비 담당자 350여명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교육급여 및 학생 교육비 지원 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정유철 기자

광주·전남 기관 사칭 노쇼·피싱 범죄, 4월까지 56건

대량 주문 후 신뢰 형성 대리 구매 요구 뒤 잠적

광주·전남지역에서 기관을 사칭해 자영업자를 속이고 금품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24일까지 60건에 이르러 경찰은 특별경보를 발령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집중 수사에 나섰다.

27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 24일까지 광주·전남지역에서 접수된 기관 사칭 피싱·노쇼 의심 및 피해 신고 건수는 총 56건(광주 47건, 전남 9건)이다.

사기범들은 특정 기관 소속을 사칭한

위조 신분증 등을 제시하고 대량 식사 예약을 통해 신뢰를 쌓았다. 그리고, 기관 납품용 물품을 대리구매해달라고 요청하는 수법을 썼다. 이후 특정 유통업체를 통해서만 물품을 받을 수 있다며 수십만원 상당의 배송료를 요구하고, 물품 수령 후 배송료를 돌려주겠다고 속였다.

광주에서는 1월 1건, 2월 4건, 3월 2건에서 4월에는 집계일 기준 40건으로 급증했다.

최근 광주소방안전본부 소속 소방관을 사칭한 사기범이 지역 장어 전문 식당에 접근했고, 식당 주인이 기관에 직접 확인하면서 피해를 막은 사례도 있었다. 정유철 기자

전남 서부권 공립 특수학교 신설 확정... 2029년 개교 목표

고등학교 6학급·전공과 8학급

전라남도교육청이 서부권 특수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한 공립특수학교 신설 계획이 교육부 심사를 통과했다.

27일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 23~24일 개최한 '2025년 정기 2차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가칭 '온미래학교' 신설안이 최종 승인됐다.

온미래학교는 옛 일로초 죽산분교장 부지에 고등학교 6학급과 전공과 8학급 규

모로 조성된다. 총 사업비는 약 450억원이다. 오는 2029년 개교를 목표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해당 부지는 남악신도시 3단계 개발 예정인 택지지구 내에 위치해 높은 접근성을 장점으로 꼽는다.

이번 특수학교 신설은 전남 서부권 특수교육대상자의 꾸준한 증가와 기존 교육시설의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5년간 전남 지역 특수교육대상자는 16.2% 증가했고, 특히 목포·무안 지역은 26.8%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교육청은 온미래학교를 고등학교 및 전공과 중심으로 운영하고, 기존 사립 특수학교는 유·초·중학교 학급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특수교육 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온미래학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가능성과 꿈을 펼칠 수 있는 맞춤형 공간이 될 것”이라며 “특수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이 공정하게 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유철 기자